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함의된 주요섭의 작가의식 연구

김리안*

|| 차례 ||

- I. 들어가며
- II.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사랑손님과 어머니』
- III.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투영된 작가의 삶과 작품경향
- IV. 나오며

【국문초록】

근대의식은 사회구성원이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자아주체성을 열망하는 데에서 비롯된다. 그 중 자유연애는 신분과 계급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봉건제도에 대한 반발이자 근대성의 표상이었다. 뜨거워진 교육열 역시 문맹을 퇴치하여 민족 독립을 이루거나 자아실현 또는 사회적 지위 향상을 통해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의지의 결과였다. 이러한 동력으로 점차 근대화 되어가던 조선은 1930년대에 이르러 근대라는 단어가 어색하지 않을 만큼 구색을 갖추게 되었다. 일제강점 하에서 국민 대다수가 경제적으로 궁핍했음에도 자본주의적 문물이 안착되었던 것은 물론 근대의식이 팽배해졌던 것이다.

이와 같은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보았을 때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요인물들은 개인의 자아에 주목하고 자유연애를 긍정하며 과부의 재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던 시기에 신교육을 받은 사회특권층이자 현대 지식인이다. 그런데 이들은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을 영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절을 강요하는 압제에서 빚겨 나 있음에도 봉건적 관습으로 사랑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 버리는 근대와 전근대의 모순에 빠지고 만다. 이렇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게 사건이 전개된 데에는 주요섭의 가치관과 창작의도가 강력하게 작용했다고 보아야 한다. 봉건적 관습과의 결별을 위해 겪어야 할 처절한 내적 갈등을 섬세하게 묘사하여 당시 지식인층이었던 독자가 감정이입을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이 갈등의 부당함에 대하여 보여주고 현대 지식인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어야 하는가에 대해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하고자 했던 것이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가의 작품 창작경향을 살폈을 때 이 작품은 통속적일 수 있는 사랑을 소재로 한 것이 아니며, 관습을 비판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도 아니다. 주요섭은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변혁에 앞장서는 지식인이었으며,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불의에 대한 저항이었다. 또한 당시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던 계층은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작가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가장 본질적 욕망인 사랑조차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사회구조에 대하여 의구심을 제기하고자 창작활동을 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현대 지식인이라면 마치 도덕률인양 내면화된 관습을 인식하고 저항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작가의식을 전달하고 있다.

주제어: 주요섭, 작가의식, 사랑, 근대의식, 지식인, 자아주체성, 항거

I. 들어가며

주요섭¹⁾의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²⁾는 1935년 『조광(朝光)』 창간호

1) 1902년 평양에서 출생하였고, 승실중학교에 다니다가 1918년 일본으로 건너가 아오야마 학원에서 잠깐 수학하였다. 1919년 3·1운동 때 귀국하여 ‘무궁화소년회’란 등사판 지하신문을 발간하였고 그 죄목으로 영어 생활을 하였다. 1920년 승실대학에 입학하여 3개월 정도 다니다가 다시 독일하여 일본 사립 세이쇼쿠 영어학교에 5개월 다녔고, 이후 1921년 중국으로 건너가 쑤저우 안청중학교에 입학하였지만 곧 형 요한이 있던 상하이로 이주하여 후장대학 중학부에 편입하였으며, 형이 입단해 있던 흥사단에 가입하였다. 1923년 후장대학에 입학, 미국으로 가기 위해 중국으로 귀화하여 1927년에 졸업하고는 바로 도미하여 스탠포드 대학 대학원에 입학하였다. 1929년 대학원 교육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뒤 귀국하여 1931년 형 요한의 도움으로 『신동아』 주간을 맡았으며, 1934년 중국 베이징의 부런대학 교수로 부임하였다. 하지만 일본의 대륙침략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에 의해 일본 영사관에 감금되기도 하는

에 발표된 단편소설로서 4차 교육과정²⁾이 실시된 이래 현재까지 삼십여 년 동안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교과서에 수록되어 온 문학정전이다. 약 30여 년 동안 지속적으로 교과서에 수록되어 온 작품이어서인지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논의는 “자칫 통속적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아름답게 승화하여 전달한다”³⁾라는 전체적인 틀을 근간으로, 어머니의 전통적인 윤리관, 섬세한 심리 묘사, 재혼을 용인하지 않는 사회와의 갈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연구되어 왔다. 주요섭의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그의 소설 연구에 대한 최근 동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박애경⁴⁾은 신경향파 소설이 대체로 방화·폭행·부르짖음 등의 결말 구조를 가짐으로써 사회적 불의에 대한 저항과 그 이상적 의지의 패배라는 비극을 그리고 있으며, 이는 독자에게 강한 정서적 충격을 주기 때문에 현실의 본질을 깨닫게 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였다. 주요섭의 초기 단편소설은 이와 같은 경향을 바탕으로 창작되었는데, 궁핍하고 참담한 사회 현

등 박해를 받다가 결국 1943년 중국정부로부터 추방당해 귀국하였다. 1945년 평양에서 해방을 맞이한 뒤 바로 월남하여 서울에 정착하였다. 상호출판사 주간(1946), 영자신문 『코리아 타임스』의 주필(1950)을 거쳐 1953년 경희대학교 영어영문학과 교수로 부임하여 20년을 근속하였다. 초기 『추운밤』(『개벽』, 1921.4), 『인력거꾼』(『개벽』, 1925.4), 『살인』(『개벽』, 1925.6), 『개밥』(『동광』, 1927.1) 등에서 빈민의 곤궁하고 암담한 삶을 다루다가 미국 유학 후 남녀의 비극적 애정 문제를 그린 『사랑손님과 어머니』(『조광』, 1935.11), 『아네모네의 마담』(『조광』, 1936.1)으로 명성을 획득하였고, 『북소리 두둥둥』(『조선문단』, 1936.3), 『낙랑고분의 비밀』(『조광』, 1939.2)에서 환상성을 수용함으로써 보다 탄력적인 소설 미학을 실험하기도 하였다. 장영우 편,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지성사, 2016, 282~306쪽.

2)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작품 인용은 이 저서를 바탕으로 하며, 인용시 (쑤수)로 표기한다. 국제신문출판국본부 편,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을유문화사, 1978, 7~45쪽.

3)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③』, 교학사, 2013, 98쪽.

4) 박애경, 『신경향파 소설에 나타난 저항의지 연구: 최서해, 조명희, 주요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5.

실이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되었음을 깨달은 등장인물들은 탈출과 자유의지를 통하여 저항정신을 내포하도록 묘사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다.

최학송⁵⁾은 주요섭이 사회주의에 심취하였던 1920년대 중반에는 주로 계급적 시각으로 민중의 삶을 담은 소설을 창작하였지만, 미국 유학 이후 자신의 이상이 비현실적임을 깨닫자 자신의 실제 경험을 소재로 한 소설을 창작하게 되어 사회성이 약화되고 예술성이 강해졌다고 하였다. 그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평범한 소재를 독특한 시각과 구성, 생동한 묘사로 미학적 효과를 거둔 주요섭의 수작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런 예술적 경향이 갑작스런 경향의 전환으로 나타난 것이 아니며, 이미 20년대의 「이미 떠난 벗」, 「첫사랑의 값」을 거쳐 30년대 후반 「아내 모네의 마담」으로 이어지는 사랑 서사의 결실이라고 보았다.

김학균⁶⁾은 「살인」(1925) 외의 주요섭 작품에서는 현실 자각과 저항의 태도가 보이지 않으므로 신경향과 소설로 읽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주요섭의 단편소설은 하층민의 비참한 현실을 형상화할 뿐이며, 오히려 하층민의 성격인 ‘서발터니티’를 지닌 식민지 시기의 인물들을 초점화자로 삼아 하층민의 시점에서 현실을 고발하는 방법을 택했다고 하였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경우는 남편의 친구의 구애를 받아들일 수 없는 구여성을 통해 젠더로서 소외된 여성의 위치를 고발한 것이라고 보았다.

위의 연구뿐 아니라 대부분의 연구들이 주요섭의 작가의식과 관련하여 저항 또는 현실고발적인 작품을 창작해 왔음을 밝혔다는 점은 공통분모라

5)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39권, 민족문학사학회, 2009, 149~175쪽.

6)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 연구」, 『배달말』 제49권, 배달말학회, 2011, 147~169쪽.

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연구사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제 의식은 애매해 보인다. 이 소설은 하층민의 이야기를 다룬 것도 아니고, 표면적으로 저항의식이 뚜렷이 드러나 있지도 않다. 또한 경제적 궁핍에서 어느 정도 벗어나 있으면서 신교육을 받은 소설 속 ‘어머니’가 소외된 구여성을 표상한 것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발생하기도 한다.

적극성의 강도는 작품별로 차이가 있겠지만 주요섭의 작품에서 ‘사랑’은 인간 본연의 욕망을 넘어선 저항의지의 소산이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 역시 그의 작가의식이 함의되어 있는 작품이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가의 삶, 다른 작품들의 경향 등을 두루 살펴 그의 작가의식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저항으로서의 작가의식이 『사랑손님과 어머니』를 통해 어떻게 형상화되었는지를 명확히 분석하는 일은 의미 있는 연구라고 여겨진다.

Ⅱ.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본 『사랑손님과 어머니』

근대화란 산업사회로의 물질적 진보뿐 아니라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고 증진시켜 나가는 변화를 의미한다. 동학농민운동 전 기간에 걸쳐 개진되었던 ‘폐정개혁안’을 살펴보면 조선 말기의 봉건적 사회를 타개하고, 천부인권과 만민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개혁 의지가 민중 사이에서 싹트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제제인 과부의 재가 문제와 관련하여 ‘젊어서 과부가 된 여자는 다시 결혼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라는 조항도 이미 개혁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는 사회적 소외 계층의 인권을 보장하여 자아를 해방시키기 위한 대표적인 사회적 쟁점이었기 때문에 인간존엄과 관련된 사항이었다. 과부의 재가 문제는 타파해야 할 구습의 표상이었으며 이에 대한 각성은 개인의 주체성의 발현을 알

리는 근대의식의 신호탄이었다.

개화기부터 국권을 회복하려는 자강운동이 일어났고 그 일환으로 교육 운동이 전국으로 퍼져나갔다. 전국 각지에서 애국지사나 선교사, 일반민중 등이 주도적으로 보통교육 수준의 수많은 사립학교를 설립하였는데, 이들은 봉건적 제도와 무지몽매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양식 교육제도를 도입하고, 서양문물과 새로운 사상 및 사고방식을 전수하고자 했다. 여자교육, 근로정신, 자주 자립사상의 보급, 운동경기 등의 과외활동 도입, 연설회와 토론회 활용 등을 통하여 전인교육의 새로운 의의를 제시하려던 것이었다.⁷⁾

물론 근대사회로 이행하고자 했던 주체적인 노력은 외세에 의해 순탄치 않았다. 특히 일제강점기에는 식민지 지배를 위한 근대로의 이식이 치밀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국권강탈 직후인 1911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교육령’⁸⁾을 공포하여 조선인을 대상으로 민족적·정치적 요소를 탈각시키고 식민지 지배 질서에 순응하도록 만드는 교육을 추진하였다.⁹⁾ 일제는 황국식민화를 이룩하기 위한 목적으로 교육을 활용하였는데, 궁극적으로 조선을 지배하여 종속시키고 교육을 통해 인력자원을 수탈하여 일제의 번영에 이바지하는 인간상을 형성하고자 목표하였다.¹⁰⁾

7) 윤소영, 『1930년대 간이학교와 신교육운동의 변용』, 『일제강점기 한국고등교육의 실태와 그 저항』, 역사공간, 2016, 204쪽.

8) ‘조선교육령(1911)’은 교육과정 제1장 강령의 제2조항에서 보듯이 “교육은 교육에 관한 칙어의 취지에 바탕하여 충량한 국민을 육성하는 것을 본의(本義)로 한다.”라고 교육목표를 규정했다. 1922년부터는 학제 및 교육 방침 변경에 따라 보통학교의 수업 연한이 늘고 국어(일본어)상용여부에 따라 학제 운영이 변화하며 실업교육이 강화되는 등으로 개정되어 가지만 교육목적이나 목표는 변함이 없었다.

9)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사, 2017, 189쪽.

10) ‘조선교육령’의 교육목표에서 ‘충량한 국민’이란 ‘지배교육, 노예교육, 동화교육’을 합리화하는 표현이었다. 허재영,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2009, 30쪽.

일제의 무단통치에 저항하며 3·1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자 전국 각지에서는 보통학교를 설립하려는 운동이 일어났다. 근대화를 추진하며 청년을 사회적 주체로서 재정의하고 이들이야말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지식을 소유해야 한다고 여겼던 것이다.¹¹⁾ 이에 따라 실력양성론에 입각한 계몽운동이 확산되었으며, 이와 더불어 누구나 자녀를 보통학교에 보내 근대교육을 받게 하려는 교육열이 과열되었다. 교육을 통해 문맹퇴치하여 민족 독립을 이루거나 자아실현 또는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여 인간답게 살아보겠다는 의식이 팽배해졌음을 보여주는 현상이다.

근대적 의식은 사회구성원 개개인의 자유와 평등을 추구하며 자아주체성을 열망하는 데서 비롯된다. 당시 지식인들은 봉건적 제도에서 벗어나 진보된 문명을 받아들이고 개조와 개혁을 통해 자아가 실현되기를 갈망하였다. 여기에서 야기된 봉건과 현대의 갈등은 가장 먼저 가정에서의 균열로 드러났다. 신소설의 작가 이해조의 예¹²⁾에서처럼 이미 구습에 따라 조혼¹³⁾을 한 탓에 구식결혼을 했던 아내를 버리고, 자유연애로 만난 신여성과 재혼하는 경우가 빈번하였다. 현대교육을 받거나 일본과 미국 등으로 유학을 다녀온 신여성들 또한 여성해방을 위하여 여성에 대한 봉건적 질서를 타파하고 사회적 활동을 보장받기 위한 운동¹⁴⁾을 전개해 나가면서 구식결혼을 반대하고 자유연애를 실천하며 남편을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197쪽.

12) 김진송, 『서울에 판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117쪽.

13) 외국유학을 마치고 온 신여성이 조선에는 남편이 없다고 탄식하기도 했는데, 시집갈 만한 데는 모두 조혼을 해버려서 이제 겨우 소년을 만난 사람도 며느리나 사위를 보게 된 상태였기 때문이다. 신명직, 『모던쌌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4, 198쪽.

14) 조선 최초의 사회주의 여성단체인 ‘조선여성동우회’는 계몽적 여성해방이 아니라 진정한 여성해방을 강령으로 내세우며 순회강연과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렇듯 근대의식의 고양으로 1920년대에는 ‘자유연애’란 말이 사회적 과장을 일으키며 유행어로 자리매김을 하였다. 자유연애는 계급적 토대에 기반을 둔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반발이자 근대성의 표상이었다. 당시 가장 대중적 논쟁의 대상이 인간 본연의 욕망과 관련한 ‘결혼과 연애’인 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었다. 신분이나 가문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개성과 감성을 근거로 상대와 대등한 관계를 이루며 사랑을 선택할 수 있다는 자유연애관은 과거의 봉건적 제도나 관습에 얽매이지 않고 자아주체성을 추구하려는 당시 시류가 반영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이런 동향은 성 문제를 개인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관점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담론으로 심화되기도 하였다. 주요점은 “남녀교제에 대한 정당한 지도와 기회공급이 필요”하며, “그냥 무조건한 엄금은 도리어 악결과를 가져온다.”¹⁵⁾라는 글을 게재하여 남녀의 자유연애를 지지하는 자신의 가치관을 이미 소명한 바 있었다. 그의 가치관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던 형 주요한도 현대의 성도덕을 ‘남성중심적, 자본주의적, 가식적’의 세 가지 특징으로 구분하면서, “정조에 관한 남녀동등의 법률을 작성하는 것이든가, 이혼의 자유를 인(認)하는 것이든가, 정조유린의 배상제라든가 하는 것들이 여성의 굴복적 지위를 향상케 하는 과정임에 틀림없”으며 “이미 여자를 장옷에서 해방한 이상 내외의 습관을 고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¹⁶⁾ 물론 1920~30년대는 전통적 정조관과 서구적 자유연애관이 팽팽히 맞서며 서로 대치하고 있었던 과도기기도 했지만 균열이 생기기 시작한 가부장제의 권위는 근대화의 흐름을 역행할 수 없었다.

이렇게 사회문화적 맥락을 고려했을 때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요인

15)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동광』 제28권, 동광사, 1931.12, 53쪽.

16) 주요한, 『성에 관한 제문제』, 『동광』 제28권, 동광사, 1931.12, 44~45쪽.

물들은 근대적 문물과 문화가 유입되며 안착되던 시기이자 자유연애를 긍정하고 과부의 재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던 시기의 인물상으로서, 생계 문제의 압박에서 벗어나 있는 교육받은 특권층이자 현대 지식인으로 그려지고 있다. 다음은 소설에서 서술된 정보를 바탕으로 주요인물을 분석한 표이다.

[표 1]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요인물

사랑손님 (‘어머니’보다 연상)	어머니 (24세)	옥희 (6세)
교사 → 먼 데 가서 공부를 하고 돌아와서 학교 교사가 됨	신여성 → 풍금을 타고 글을 읽거나 쓰며 예배당에 다님	유치원생 → 창가와 댄스(춤)를 배우며 예배당에 나감

먼저 소설의 창작연도가 1935년이고, 작품의 시대적 배경이 1930년대이므로 ‘어머니’의 작품 속 나이가 24세라는 사실을 근거로 보았을 때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1920년대에 청소년기를 보냈다고 할 수 있다. ‘어머니’의 경우 풍금을 타거나 글을 읽고 쓰며, 예배당에 다니고 있다는 점에서, ‘사랑손님’의 경우 먼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왔다는 점에서 현대적인 교육을 받고 자랐음을 알 수 있다. 당시는 보통학교에 들어가고 상급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당연한 기류처럼 인식되며 사회가 과도한 교육열로 뜨거워져 있었지만, 대부분의 민중은 빈곤으로 인해 진학하지 못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그런데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받은 교육의 내용은 야학이나 강습소에서 실시했던 ‘보통의 지식·기능’을 강화하거나 노동과 사회 참여를 위한 ‘실업교육’의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 그렇다면 중등교육 이상을 받았다는 것인데, 일제강점기에는 중등학교 수가 절대적으로 적어서 입학 자체가 사회적 특권이었다. 보통학교 졸업생 중 중등학교에 진학하는 비율이

10% 안팎에 지나지 않았으며, 1930년대를 기준으로 중등학교 입학연령에 해당하는 인구 가운데 실제로 중등학교에 입학한 학생의 비율은 1.9%였고, 여기서 남녀 비율은 남성이 여성의 3배를 넘었다.¹⁷⁾

또한 1930년대가 되어 신식 교육이 확산되면서 지식인의 수요가 늘어났지만 일제강점의 현실에서 지식인은 식민지 관료가 되거나 학교선생으로 남지 못하면 대개 고등실업자가 되었다.¹⁸⁾ “교문으로 쏟아져 나오는 청소년은 해마다 늘어나지만 <…> 시정(施政)의 발전에 따라 재정은 팽창하고 백성이 부담하는 세금은 높아 가는데 농촌 경제는 진보하지 않고 구태 그대로”¹⁹⁾라는 글에서 볼 수 있듯이 없는 살림에도 자녀를 교육시키기에 여념이 없었던 대부분의 가정은 실업난에 절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사랑손님’은 ‘어머니’가 사는 시골 동리의 교사로 부임 받아 하숙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경제활동에 그다지 무리가 없어 보인다.²⁰⁾ ‘어머니’ 역시 ‘사랑손님’의 친구였던 (생전 교사이자 풍금을 선물했던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빈곤하지 않은 지식인으로 예측할 수 있는) 남편과 사별하여 청상과부가 되었지만, 유산으로 남겨 준 가옥 덕에 안정된 삶의 터전에서 생활하고 있을 뿐 아니라 땅에서 추수되는 작물이 있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²¹⁾ 게다가 ‘어머니’는 바느질을 하거나 하숙을 쳐서 번 돈으로 옥희에게 ‘청어, 달걀 반찬을 해 주거나 간식으로 ‘사탕’을 사 주는 등 식민지 상황과 어울리

17) 이준식, 앞의 책, 195쪽.

18) 김진송, 앞의 책, 120쪽.

19) 이기훈, 앞의 책, 196쪽.

20) “아저씨는 돌아가신 우리아버지와 어렸슬적 친구라구요. 어데 먼데가서 공부를 하다가 요새 돌아왔는데 우리동리 학교 교사로 오게 되셨대요.”(12)

21)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우리가 먹고 살것을 남겨놓고 가셨대요 <…> 조고만 산이 있는데를 가서 거기서 밤도 따먹고 또 그산밑에 초가집에 가서 닭고기 국을 먹고 왔는데 거기있는 땅이 우리땅이래요. 거기서 나는 추수로 밥이나 굶지 않게 된대구요.”(9)

지 않는 넉넉한 소비를 위해 주체적으로 경제활동에 가담하고 있다.²²⁾ 당시 일제가 시행한 토지개량령²³⁾으로 인해 농촌이 몰락하여 생계가 유지되지 않았던 농민들은 도시로 이주하였고 도시 외곽에서 빈민층을 형성하며 생활하고 있었지만, 이들은 절대빈곤의 고통에서 벗어나 있을 뿐더러 경제적으로 안정된 계층의 삶을 영위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섭은 스탠포드대학에서 교육학 석사과정을 마치고 귀국한 후 “옛것이 파멸되었다. 그러나 아직 조선청년은 새로운 기초를 발견하지 못했다. <…> 현대조선청년은 제앞길을 저 스스로 개척하지 않으면 안될 운명에 처하였다. 시대와 경우를 보아 깨쳐부서버려야 될 물건은 헛딱 깨쳐버려야 겠고 조곰씩 조곰씩 개량하여야 할 것은 또 점진으로 개선하기에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²⁴⁾라며 청년이 개혁과 개조에 앞장서야 함을 이미 역설한 바 있었다. 청년이야말로 과거를 타개하고 미래를 이끌어야 할 책임자여야 한다는 작가의식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렇다면 근대화의 흐름에서 주요섭이 주창한 현대 지식인의 역할이란

22) “어머니가 다른사람의 바누질을 맡아서 해주시오. 바누질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루 청어도 사고 닭알도 사고 또 내가 먹을 사탕도 사고 한다구요.”(9) ; “또 우리도 그 아저씨한테서 밥값을 받으면 살림에 보탬도 좀 되고 한다구요.”(12)

23) 조선총독부는 1927년 12월 28일자 관보(官報)를 통해 ‘전답(田畓) 정비, 자금 지원, 수리시설 확충, 양잠과 면화 증산 장려’ 등을 골자로 한 조선토지개량령을 공포하였다. 이는 1921년부터 시작된 산미증식계획의 연장선으로써 일제가 조선에서 자원을 탈취해 본국으로 보내려던 식민지 경제정책 중 하나였다. 1910년대부터 인구 급증세로 식량 증산이 다급해졌던 일제는 산미증식계획을 폈지만 성과가 없자 그 대안으로 조선토지개량령을 시행하였다. 이렇게 증산된 쌀은 그 이상으로 일본으로 빠져나갔기 때문에 쌀 생산은 늘었음에도 조선 민중은 굶주렸고, 이로 인해 일본의 쌀값도 폭락하여 1934년 일본의 농업공황을 야기하였다. 그 결과 조선인 소규모 자영농이 무너지며 대거 소작인으로 전락하게 되었으며 농촌은 몰락하고 말았다.

24) 주요섭, 『금일 조선청년의 변민과 타개책』, 『청년』 제10권 7호, 청년잡지사,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1930.10, 230~231쪽.

“문제적 세상에 다가온 ‘강력하고 위협적인 타자’에 대처하기 위해 ‘낮은 주체’와 결별하기 위한 몸부림”²⁵⁾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주요인물들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수절에 대한 압제에서 빚겨 나 있는 신교육을 받은 지식인임에도 봉건적 관습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랑에 대한 욕망을 억압해 버리는 근대와 전근대의 모순에 빠지고 말았다. 이렇게 인물들이 내적 갈등을 겪다가 결국 사랑을 포기하도록 사건을 전개해 나간 데에는 주요섭의 창작의도가 강력하게 작용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런 모순적 갈등에 처하게 되었을 때 지식인의 선택이란 어떠한가 하는가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자 했던 것이다.

Ⅲ. 「사랑손님과 어머니」에 투영된 작가의 삶과 작품경향

봉건적 인습은 사회공동체의 내면에 뿌리박혀 있어서 비판의 대상으로 인식되지 못하며 오히려 도덕규범이라는 명목으로 정당화된다. 자유연애와 같은 새로운 문화는 근대적 산물로서 지향되지만, 성규범과 관련된 습속은 오랜 기간 동안 무의식 속에 구조화되어 법을 고친다고 해도 쉽게 바뀌지 않는다. 이런 사회구조 속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 역시 재혼을 비난하는 당시 분위기에 순응하며 사랑을 끝끝내 선택하지 못한다. 어떠한 비판이나 저항 없이 부당하게 강요된 수절이라는 도덕적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이별을 택하고 마는 것이다. 이는 갑오개혁 이후 과부재가금지법이 폐지되었음에도 내면화된 인습으로 인해 실제 시행되기에는 사회적으로 한계가 있었던 현실을 반영한 작가의 의도적 설정이다.

25) 김진송, 앞의 책, 13쪽.

만민평등과 인간해방을 부르짖으며 근대화가 진행되고 있었지만 사회에서는 재가를 부정시키는 분위기가 여전히 만연해 있었다. 재혼한 여성을 멸시하거나 그들의 자녀를 ‘화냥년의 딸’이라고 모욕하며 소외시키기 일췌였다. ‘어머니’가 옥희 하나면 그뿐이라는 자성적 주문을 되뇌며 ‘사랑손님’과의 사랑을 접고 이별을 선택했던 일은 당시 모성으로서 지켜야 할 보편타당한 윤리관이었다. 이런 이유로 ‘사랑손님’도 ‘어머니’의 입장이 담긴 편지를 받고는 ‘어머니’의 선택에 대한 특별한 변론 없이 이별을 단담히 받아들인 채 허숙집을 떠나갔다. 이런 소설의 전개는 인간 본연의 욕망이자 권리인 사랑을 억압하고 마는 내면화된 인습이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시대착오적인 구습의 폭력성을 비판하고자 의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주요섭 소설의 창작경향을 살폈을 때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주제를 단순히 폭력적인 관습에 대한 비판이라고 국한하여 보기에는 미흡한 면이 있다. 그에게 있어서 ‘사랑’은 개혁의지의 소산이었기 때문이다. 즉 비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저항하고 개혁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이 소설에서도 내재되어 있는 것이다.

사랑! **사랑은 인류의 가슴에 영구히 잠겨 있는 불멸의 씨이다.** 이 씨가 구박과, 무식과, 차티(착취)와, 무렵티(몰염치)라는 돌맹이 밧헤 놀니여 잇는 동안 자라지도 안코 짜라서 당자도 그 씨의 존재를 인식치 못한다. 그러나 **이 씨가 잇든 우연한 기회를 맞나 한번 해빛을 엿보는 날에는** 이 씨는 맞치 비온 뒤 참대순과도 갖치 하로밤 새에 짝이 쑥 소사오르고 하로 새에 쫓이 피고 열매가 맺는 것이며 이 자람을 막을 자는 세상 아모것도 업다. **이 자람의 세력은 세상 모-든 무력을 압도하고 부서 업새고 마는 것이다.**²⁶⁾

26) 주요섭 소설 『살인』(『개벽』, 1925.6)의 일부다. 진한 글씨체는 내용을 강조하기 위해

위의 인용글에서 보듯 주요섭에게 ‘사랑’은 억압적 관습을 타파하는 원동력이었다. 이러한 가치관의 연장선에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작가는 작중인물이 사랑을 위해 적극 해결해야 할 ‘관습 타파’라는 문제를 보다 선명히 부각시키기 위한 의도로써 소설의 공간적 배경을 일제강점기와 동떨어져 보이는 한적하고 평화로운 ‘동리’로 설정하였다. 두 주인공은 근대화된 도시나 몰락한 농촌 어디에도 속하지 않아 보이는 막연한 동리에서 만나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뿐 아니라 작중인물이 오로지 사랑을 방해하는 인습으로만 갈등하도록 어떠한 외압의 기제도 이들의 사랑에 작용하지 못하게끔 설정하였다.

먼저 ‘어머니’의 경우 앞서 살폈듯이 생계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어 있을 뿐 아니라 주체적으로 경제적 활동에 가담하고 있다. 또한 바로 옆집에 사시는 (자주 드나들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 친정어머니가 ‘어머니’의 집에 방문할 때마다 사별한 남편의 사진을 치우라며 수절에 대한 의무를 부정하고 있으며,²⁷⁾ 친정오빠는 사별한 남편이 머물렀던, 전통적으로 가장의 생활공간인 ‘사랑’에 죽은 남편의 친구이자 본인의 친구인 낯선 남자 ‘사랑손님’을 들였다.²⁸⁾ 구여성에게는 절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상황이 이미 사건 이전에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이처럼 사건의 발단에서 제공되는 실마리가 봉건적 관습을 부정하는 작가의식에서 비롯하여 장치

집필자가 의도적으로 설정하였다. 주요섭, 이승하 엮음, 『주요섭 단편집』, 지식은만드는지식, 2012, 9쪽.

27) “그 (아버지의) 사진도 본지가 찍오래되었는데 이전에는 그사진을 늘 어머니 책상위에 놓아두시더니 외할머니가 오시면 오실때마다 그사진을 치우라고 늘 말씀 하셨는데 지금은 그사진이 어디있는지 없어졌어요.”(8)

28) 사랑에서 큰외삼촌이 웬 한 낯선 사람 하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 “자, 옥히야, 커단 처녀가 왜 저모양이야 어서와서 이 아저씨께 인사해여. 너이 아버지의 옛날친구신데 오늘부터 이사랑에 계실텐데 인사여쭙고 친해 두어야지.”(10)

되어 있음을 찾아 볼 수 있다.

마찬가지로 ‘사랑손님’의 경우 먼 데서 공부를 하고 돌아온 인물로서 이는 주요섭이 일본, 중국, 미국을 유학하여 근대교육을 받았던 점과 유사하다.²⁹⁾ 작가는 20대의 나이에 미국을 유학하면서 계급을 막론하고 개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중시하던 민주주의 제도에 강한 인상을 받은 바 있다.³⁰⁾ 작가가 유학했던 시기의 나이와 비슷한 ‘사랑손님’이 작가의 삶과 의식을 투영하고 있는 인물이라고 보았을 때³¹⁾, ‘사랑손님’은 만민평등과 남녀동등의 가치관을 내면에 가졌을 것이라 추정된다. 그렇다면 과부인 ‘어머니’에게 아무 조건 없이 대등한 인간으로서 사랑을 느끼고 고백했던 것은 오롯이 사랑이라는 본연의 감정에 충실했던 근대적 자아의 주체적 선택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가를 부정시키는 사회 분위기에 압도된 ‘어머니’가 이별의 답장을 보내자 이에 순응하는 소극적인 태도는 이상과 현실의 간극을 극복하지 못하는 현대 지식인의 한계를 여실히 드러낸다.

‘옥희’ 역시 유치원에 다니면서 ‘창가’나 ‘댄스’를 배우고 있는 등 근대적 교육을 받고 있다.³²⁾ 물론 동요와 율동 정도였겠지만 그 당시에 창가나 댄스가 가지는 시대적 의미는 그 이상의 것이었다. 창가는 그 내용이 대개 진보·개혁에 대한 열망이나 문명·개화의 염원을 담고 있었으므로 신교육의 일환이었다. 또한 1930년대의 춤은 몸의 자유를 의미하며 쾌락 이전

29) 주요섭은 1918년 숭실대학 3학년 때 독일(度日)하여 청산학원 중학부 3년에 편입하였고, 1920년 상해로 건너가 호강(滬江)대학에 입학하였으며, 1928년에 미국 스탠포드대학원을 수료하였다.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편,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을유문화사, 1978, 4쪽.

30)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별건곤』 제16~17합호, 1928.12, 160~161쪽.

31) 소설의 인물은 당대의 시대적 관념을 표상하며 인물의 성격 및 그 운명이 함축하는 관념은 작가의 사회에 대한 평가와 인식을 담고 있다. 임화, 『현대소설의 주인공』,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245쪽.

32) “나는 유치원에 가서 창가도 배우고 댄스도 배우고 하였습니다.”(15)

에 답답한 현실을 벗어나려는 도구였다.³³⁾ 그렇다면 인간의 주체성을 추구하며 근대화를 이끌어 갈 미래세대인 옥희의 입장에서 엄마의 재혼 문제는 춤사위로 극복해야 할 사회적 인습일 뿐이다. 옥희는 여섯 살의 어린 나이지만 “난 아저씨가 우라 압빠래문 좋겠다”(19)는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당찬 인물로서 아이의 말에 속마음을 들키고 “그런 소리하문 못써”(20) 하며 당황하는 ‘사랑손님’이나 자신의 사랑을 억압하며 죽은 남편의 옷을 부여잡고 과거에 머물고자 몸부림치는 ‘어머니’와 대조를 이루는 새로운 세대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작중인물들은 경제적인 궁핍, 수절에 대한 강제, 근대의식의 결핍 등에서 완전히 빗겨 나 있으며, 그들에게 있어서 사랑을 방해할 만한 요인은 사회 공동체에 내면화되어 있는 인습뿐이다. 그럼에도 사회적 지도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현대 지식인인 이들은 처절한 내적 갈등 끝에 봉건적 가치를 답습하며 이별을 선택한다. 진정한 지식인이라면 앞서 살폈듯이 “세상 모-든 무력을 압도하고 부서 업새고 마는” 사랑으로 인습을 타파하여 새로운 세상을 향한 개혁의 의무를 실천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말이다.

이 소설이 발표되었을 당시의 국민 문맹률³⁴⁾을 고려한다면 문학 작품은 결코 민중의 것이 아니었으며, 문학을 향유할 수 있었던 계층은 지식인층이었다. 따라서 작가는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을 통해 이들 앞에 벽처럼 버티던 봉건적 인습과 내면화된 도덕윤리를 보여주며, 현대 지식인으로서 자아주체성을 억압하는 사회구조에 아무런 저항 없이 순응하고 사

33) 이승원, 『소리가 만들어낸 근대의 풍경』, 살림, 2005, 69쪽.

34) 광복 직후 우리나라의 문맹률은 78%였다는 기록이 있다.(편찬위원회, 『문교40년사』, 1988, 102~103쪽, 201~202쪽. 허만길, 『현대 한국 국어 정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4, 52쪽에서 재인용)

는 삶이 과연 온당한가 하는 문제를 독자인 지식인층에게 우회적으로 제기했다고 보아야 한다. 다시 말해 지식인이라면 부조리한 현실에 맞서 저항해야 한다는 작가의식이 이 작품에도 함의되어 있는 것이다. 이러한 작가의식은 그의 삶과 다른 작품들에서도 일관되게 드러나 있다.

주요섭은 일본 유학 중 3·1운동이 발발하자 귀국하여 김동인 등과 등사판 지하신문인 『무궁화소년회』를 발간하고 만세운동에 가담했다는 죄목으로 옥고를 치른 바 있으며, 1920년에는 형 주요한을 좇아 흥사단에 입단하여 민족부흥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 또 중국의 대학에서 교수로 재임하고 있을 때 일제의 대륙침략에 협력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중국 정부로부터 추방된 바도 있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변혁에 앞장서는 지식인의 삶을 살았던 것이다.

그의 작품들을 살펴보면 초기작에서부터 부당하게 내면화된 제도적 장치나 부정현실에 대해 문제의식을 표출하는 경향으로 나타난다. 일본에서 유학하는 동안 자연주의의 영향을 받았던 그는 신경향파³⁵⁾적인 소설을 창작함으로써 부조리한 현실을 폭로하고 저항하고자 하였다. 가령 앞서 보았던 「살인」(『개벽』, 1925.6)은 갈보라고 소개한 ‘우뽀’라는 인물이 한 지식인 청년을 사랑하게 되면서 자신의 의지나 선택과 아무 상관없이 태생부

35) 박영희는 「신경향파의 문학과 그 문단적 지위」(『개벽』, 1925.12)에서 김기진의 「붉은 쥐」, 조명희의 「땅속으로」, 이기영의 「가난한 사람들」, 주요섭의 「살인」, 자신의 「전투」 등을 묶어서 창작계의 새로운 변화에 주목하고 있다. 그는 그것들이 모두 무산계급문학으로서 완성품은 아니지만 종전의 부르주아문학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경향’을 보인 것이라고 평하고 있다.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2, 172쪽; 박영희는 1920년대 초반 한국문단에 ‘경향’이란 용어를 처음 소개하였다. 그는 신경향파란 자연주의적 기법으로 당시 반공과 고녀의 생활상을 그려내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1920년대 중반에 이르러 그들의 의식에 투쟁과 반항을 형성하기 위해 계급문학으로의 전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게 되었다.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16, 317쪽.

터 가난한 가정형편과 그것을 이용하려는 자본주 때문에 몸을 팔게 되었다는 사실을 자각한 순간, 자신의 몸을 담보로 돈을 벌고 있던 ‘똥똥할미’를 살인하여 처단한다.

1930년대에 들어서도 그의 저항적인 소설 경향은 계속된다. 『북소리 두둥둥』(『조선문단』, 1936.3)의 인선은 상업학교를 마치고 백화점 점원으로 일하는 청년이며, 서술자인 ‘나’의 집에서 식모 일을 하는 복실의 아들이다. 북간도를 개척한 조선인으로서 끊임없이 투쟁하던 아버지가 전사하던 날 인선이 태어났는데, 그날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긴 “여보, 아무래도 나가 봐야겠네. 한 사람 있구 없는 데 승부가 달렸으니깐니…… 총출동, 총출동”하는 말을 꿈속에서 들으며 성장한다. 결국 인선은 아버지의 뒤를 좇아 (백화점에 출근도 하지 않은 채) 사라져 버리고, 그 이야기를 복실에게 듣는 ‘나’는 “지금 몇도 모르고 북을 두드리며 안방을 헤메는 저 네 살 난 내 아들놈, 저놈 또한 자라나서 한 사람이 될 때에는 한 사람을 부르는 그 북소리를 따라서 나와 제 어미를 내버리고 가버리지 않겠다고 누가 담보하겠는가.”라는 혼잣말과 함께 북소리가 머릿속을 점령하는 걸 느낀다. 식민지 현실에서 개인의 안위에 머물지 않고 투쟁을 위한 총출동을 의미하는 북소리를 자각하는 저항적 태도를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다.

주요섭의 작가의식은 사랑 서사에서 자아의 주체성을 억압하는 결혼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나타난다.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창작했다는 『첫사랑 값』(『조선문단』, 1925.9~11, 1927.2~3)에서 서술자인 ‘나’는 유학을 하던 중 사랑하게 된 중국여인 N을 지켜주지 못할 바에야 사랑하지 않는 게 낫다고 생각하여 도망치듯 귀국한다. 주변의 강제로 결혼을 하게 되지만 결혼이라는 제도에 대한 부당함과 제어할 수 없는 상사병으로 인해 괴로워하다가 결국 ‘나’는 자살로써 저항을 표명한다. 사회적 구속으로부터 사랑을 지키지 못할 바에야 죽음이 더 낫다는 작가의 체험적 성찰³⁶⁾이 이

소설 속에 드러나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주요섭의 가치관은 자신의 사랑과 결혼을 선택하는 과정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첫사랑 값』을 미완으로 남겨두고 1927년 미국 유학을 떠났던 주요섭은 2년 뒤 귀국하여 집안의 강한 권유로 황해도 출신의 유(劉)씨와 결혼하였지만 부인이 마음에 들지 않아 한두 달도 채 살지 못하고 퇴박한 뒤 독신으로 지냈다. 그러다가 1936년 그가 북경에 있을 때 동아일보사의 『신가정』지 여기자 김자혜와 자유연애를 하여 두 번째 혼인을 했으며, 이후 개인적 삶과 결혼 생활의 안정기를 맞았다고 토로하였다. 구습에 의한 결혼이 인간의 행복에 얼마나 걸림돌이 되는지, 스스로 사랑을 선택하여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가정을 꾸리는 것이 개인의 삶을 얼마나 인간답게 하는지를 직접 경험했던 그에게 있어서 사랑과 결혼은 근원적인 자아주체성의 발로였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작가의식과 개인적 체험은 『사랑손님과 어머니』로 이어지며 이 작품보다 한 해 뒤에 창작한 소설 『아네모네의 마담』(『조광』, 1936.1)에서는 ‘현 사회에서는 매음 같은 더러운 성관계는 인정하면서, 집안 사정상 별로 달갑지 않은 혼인을 한 젊은 여인의 불행에는 관심이 없으며 결혼을 했다는 이유로 고귀한 첫사랑을 바칠 수 있는 대상을 발견할 때 그것을 더럽다고 낙인해 버린다’³⁷⁾고 발언함으로써 부당한 결혼제도에 대해 적극 항의한다. 이런 항의야말로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인 사랑조차도 자유롭게

36) 1923년 중국의 후강대학에서 유학했던 시절 그는 음악대학에 다니던 호(胡)양을 연모한 적이 있었지만, 호양의 집안에서 한국인이라 반대하여 심한 상사병을 겪은 바가 있었다. 이후 첫사랑의 실패로 다 타버리고 재만 남은 마음이라는 뜻을 담아 자신의 필명을 ‘여심(餘心)’이라 정했다는 일화를 통해 사랑에 소극적이었던 자신에 대한 질책의 마음이 가슴 한구석에 맺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韓國作家傳記研究) 하(下)』, 동화출판공사, 1980, 145쪽.

37) 주요섭, 『아네모네의 마담』, 『이상 최명익 외』, 창비, 2005, 57쪽.

실현할 수 없는 사회의 폭압을 향해 저항하려는 작가의식인 것이다.

이런 작가의식이 바탕이 되어 1935년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창작·발표되었다면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랑과 이별을 “자칫 통속적일 수 있는 사랑 이야기를 어린아이의 시선을 통해 아름답게 승화하여 전달한다.”라는 예술적 측면에서 평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가의식을 살폈을 때 현대 지식인인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과부의 재가 문제라는 구습을 용인하고 사랑을 억압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 사유는 그들의 내면에서 작용하고 있는 인습적 검열 외에 아무 것도 없으며, 이에 맥없이 순응하는 작중인물의 시대착오적인 태도는 작가의 비판대상이었다. 특히 주요섭은 중학교에 다니는 지식인인 옥희의 작은외삼촌의 목소리를 빌려 현대 지식인층인 ‘어머니’와 독자를 향해 “요세 세상에 내외합니까?”(14)라는 시의적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부당한 현실에 항거하는 자세가 지식인의 역할임을 촉구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주요섭의 작가의식은 이 소설의 결말에서 집약적으로 드러난다. 옥희의 손을 붙잡고 기차 정거장이 내려다보이는 뒷동산에 올라간 ‘어머니’는 ‘사랑손님’이 탔으리라고 추정되는 기차가 산모퉁이 뒤로 사라질 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 위로 모두 흩어져 없어질 때까지 마냥 바라보고 서 있었다.³⁸⁾ ‘철도’는 문명개화를 상징하는 대표적 근대문물이며 ‘기차’는 근대화를 향해 나아가는 동력을 의미한다. 따라서 기차에 올라타지 못한 채 덩그러니 남겨진 ‘어머니’와 기차에 탑승했지만 한낱 연기가 되어 사라진 ‘사랑손님’의 모습은 근대를 지향하지만 근대화를 실천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현대 지식인을 상징한다.

38) “기차가 저편 산모퉁이 뒤로 살아질때까지 그리고 그 굴뚝에서 나는 연기가 하늘위로 모두 흐터져 없어질때까지, 어머니는 가만히 서서 그것을 바라다 보았습니다.”(44)

작가는 ‘사랑손님’을 떠나보낸 후 풍금 뚜껑을 닫고, 뻘뻘마른 꽃송이를 버리며, 달걀을 더 이상 사지 않겠다는 ‘어머니’를 의도적으로 ‘석양’이 뻘뻘히 비추는 황혼의 시간에 위치시켰다.³⁹⁾ 전근대적인 인습에 순응하는 인간상을 하강적 이미지로 묘사한 것이다. 그리고는 옥희의 입을 통해 “때를 좀 쓰구싶다만 저 우리엄마 얼굴을 좀 봐라 어찌문 저리두 새파래 졌을가. 아마 어테가 아픈가보다”(45)라고 평가하였다. ‘석양’과 ‘새파래진 낮빛’은 사랑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자아의 죽음을 뜻한다. 즉 ‘어머니’의 삶 속에서 사라진 ‘사랑손님’이나 사랑을 주체적으로 선택하지 못한 ‘어머니’와 같이 전근대의 인습에 매몰된다면 근대가 지향하는 인간의 자유와 인권은 결국 허상이 되고 말 것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주요섭이 작가의식을 투영하여 당시 문학 향유층인 지식인을 겨냥한 소설을 창작했다면 궁극적으로 이들의 의식 변화와 실천을 촉구하려던 그의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작품에 접근하는 것이 마땅하다. 작가는 사회 개혁을 주도해야 할 지식인 계층인 독자를 향해 ‘부당한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문제의식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소설을 창작해 왔다. 그렇다면 『사랑손님과 어머니』 역시 전근대와 근대의 경계선상에 선 지식인의 역할이란 도덕과 윤리로 위장한 봉건적 관습을 타파하고 자아주체성을 실현하여, 역사가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의 방향으로 변혁을 이끌어 나가야 한다는 주제의식을 함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작가가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아름다운 사랑을 왜 좌절시키고 말았는지에 대한 해답은 이렇게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가의식에서 이해하는 것이 온당하다.

39) “나는 <...> 석양에 뻘뻘히 비추는 어머니 얼굴을 볼 때 그용기가 없어지구 말었습니다.”(45)

IV. 나오며

자아주체성에 대한 열망은 근대의 단초를 마련하였다. 근대의식이 성장함에 따라 자아의 해방을 이루고자 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졌는데, 당시 유행했던 자유연애 사상은 계급과 신분에 기반을 둔 봉건적 결혼제도에 대한 반발이자 근대성의 표상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에는 사회적 소외 계층인 과부의 재가 문제가 그 핵심에서 논의될 수밖에 없었다. 가장 소외되어 있던 계층의 해방이야말로 진정한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과부재가금지법이 폐지되었음에도 사회 공동체에 내면화된 인습은 여전히 굳건하게 과부의 재가를 부정시하고 있었다. 소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창작되었다.

‘사랑손님’과 ‘어머니’는 근대적 중등교육을 받은 현대 지식인이자 일제강점기의 궁핍한 시대상황에서도 특별히 경제적 어려움이 없는 소수 계층이었다. 또한 ‘사랑손님’은 먼 데 가서 공부를 하고 온 뒤 학교 교사라는 사회적 지도자의 위치에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그녀의 가족이 직접적으로 가부장제를 부인하며 자아실현을 하도록 힘을 실어주고 있었다. 문제는 ‘사랑손님’과 ‘어머니’가 자유연애를 긍정하고 과부의 재가 문제를 사회적으로 해결하려던 시기에 만나 사랑을 하게 되었음에도, 인간 본연의 욕망이자 자아주체성의 발로인 ‘사랑’으로 인해 처절한 내적 갈등을 겪는 동안, 사회적 지도층으로서 인습에 저항하기보다 봉건적 가치를 답습하며 무기력하게 기존 체제에 순응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건 전개에는 주요섭의 작가의식이 강력하게 작용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당시 작가는 근대교육을 받은 현대적 지식인이라면 사회를 개혁해 나가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었고, 특히 ‘사랑’을 불의에 대한 저항이라고 여긴 까닭에 자유연애의 장려와 여성 지위향상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고 있었다. 그의 삶과 작품 창작경향을 살폈을 때 작가는 불의에 굴복하지 않고 사회변혁에 앞장서는 지식인이었으며, 불합리한 사회제도에 항거하는 참여적인 태도가 작품 전반에서 두루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소설이 봉건적 관습과 결별하기 위하여 겪어야 할 내적 갈등을 묘사한 목적은, 당시 소수의 독자층이었던 지식인을 향해 ‘현대 지식인으로서 행해야 할 바람직한 선택과 실천이란 무엇이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제기하고자 함이었다. 작품의 전개 중 옥희의 작은외삼촌을 통해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라고 던진 질문에 대한 해답은 결말에서 찾을 수 있는데, 근대성의 상징인 기차를 타고 연기처럼 사라진 ‘사랑손님’과 그것을 바라보며 황혼의 시간 속에 남겨진 창백한 ‘어머니’의 모습 등에서 작가가 말하고자 한 주제의식이 내밀하게 함의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요섭은 근대화를 이끌어갈 지식인이란 주체적인 삶을 통해 세계와 대결하면서 최선의 선택으로 자유와 인간존엄을 실현하여 보다 나은 미래로 역사가 흐르게끔 마중물이 되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여겼다. 그러므로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사회문화적 맥락과 작가의 삶, 작품 창작경향을 살폈을 때 이 작품은 인간의 가장 근원적 욕망인 사랑조차도 개인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그릇된 현실을 자각했다면, 마치 도덕률인양 내면화된 관습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지식인으로서 인간존엄을 실현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저항해야 하지 않느냐는 작가의식을 전달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제펜클럽한국본부 편, 『한국중편소설문학전집』, 을유문화사, 1978.
- 권영민, 『한국현대문학사 1』, 민음사, 2016.
- 김진승, 『서울에 만스홀을 허하라』, 현실문화연구, 2004.
- 김윤식 외, 『한국현대문학사』, 현대문학, 2002.
- 김학균, 『주요섭 초기소설에 나타난 여성의 서발터니티 연구』, 『배달말』 제49권, 배달말학회, 2011, pp.147-169.
- 남미영 외,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국어③』, 교학사, 2013.
- 박예경, 『신경향과 소설에 나타난 저항의지 연구: 최서해, 조명희, 주요섭의 작품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석사학위논문, 2005.
- 신명직, 『모던쌌어, 경성을 거닐다』, 현실문화연구, 2004.
- 윤소영, 『1930년대 간이학교와 신교육운동의 변용』, 『일제강점기 한국고등교육의 실태와 그 저항』, 역사공간, 2016.
- 이기훈, 『청년아 청년아 우리 청년아』, 돌베개, 2014.
- 이승원, 『소리가 만들어낸 근대의 풍경』, 살림, 2005.
- 이어령, 『한국작가전기연구(韓國作家傳記研究) 하(下)』, 동화출판공사, 1980.
- 이준식, 『일제강점기 사회와 문화』, 역사비평사, 2017.
- 임 화, 『현대소설의 주인공』, 『문학의 논리』, 서음출판사, 1989.
- 장영우 편집,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지성사, 2016.
- 주요섭, 『미국의 사상계와 재미조선인』, 『별건곤』 제16-17합호, 개벽사, 1928.12, pp.159-161.
- 주요섭, 『금일 조선청년의 변민과 타개책』, 『청년』 제10권 7호, 청년잡지사, 조선중앙기독교청년회(YMCA), 1930.10, pp.230-231.
- 주요섭, 『학생풍기물란론』, 『동광』 제28권, 동광사, 1931.12, pp.50-53.
- 주요섭, 『성에 관한 제문제』, 『동광』 제28권, 동광사, 1931.12, pp.44-45.
- 주요섭, 『인권유린에의 항거』, 『새벽』 제7권 5호, 1960.5, pp.118-120.
- 주요섭, 『아네모네의 마담』, 『이상 최명익 외』, 창비, 2005.
- 주요섭, 『사랑손님과 어머니』, 문학과 지성사, 2016.
- 주요섭, 이승하 엮음, 『주요섭 단편집』, 지식올만드는지식, 2012.
- 최학송, 『해방전 주요섭의 삶과 문학』, 『민족문학사연구』 제39권, 민족문학사학회,

2009, pp.149-175.

허만길, 『현대 한국 국어 정책 연구』, 홍익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4.

허재영, 『일제강점기 교과서 정책과 조선어과 교과서』, 경진, 2009.

Abstract

A Study on Writer's Consciousness of Ju Yo-seop in 「The guest and Mother」

Kim, Lee-an

Modern consciousness comes from the desire for freedom and equality and longing for ego identity by members of society. Free love was, inter alia, a reaction against the patriarchal feudalism based on status and class and seen as a symbol of modernity. Education was the result of the will to achieve national independence by eliminating illiteracy, and helped individuals to improve their social status and reach self-realization as well. With such a driving forces, Joseon gradually modernized itself in the 1930s, and was able to assemble enough that the word modernity would not be awkward. That is why capitalist culture settled down and modern consciousness became prevalent, although the majority of the people were poor financially.

In this sociocultural context the main characters of 「The guest and Mother」 are the newly educated social and modern elite who paid attention to their individual egos, were open to free love, and were about to solve the widow's remarriage problem. Even though they led financially stable lives and were strayed by the tyranny of the remaining faithfulness of a widow, they fell into the contradiction of modern times when feudal customs suppressed their desire for love. The developments should be viewed as a strong reflection of Ju Yo-seop's values and purpose of writing. The author has provided detailed descriptions of the inner conflict of the desperate people who should break away from feudal customs. At the same time, he wanted to maximize the injustice of the conflict by encouraging the reader to be empathetic, while giving the reader an opportunity to discuss he choices of the intellectuals.

The sociocultural context of 「The guest and Mother」 is not based on a love that can be vulgar, nor on criticizing customs. Ju Yo-seop was an

intellectual who did not succumb to injustice but was a leader in social change, and for him, love was the driving force of social revolution. In addition, intellectuals were able to enjoy literature at the time. The author emphasizes that through his literature even the most essential human desire, love, should voice its criticism of the structure of society, which individuals cannot freely choose. In particular, modern intellectuals convey the writer's consciousness in that they should be able to recognize and resist internal customs, as if they were moral factors.

Key Word: Ju Yo-seop, Writer's Consciousness, Love, Modern Consciousness, Intellectual, Ego Identity, Resistance

김리안

소속 : 부산대학교 국어교육학과 박사과정

전자우편 : leeani@naver.com

이 논문은 2018년 5월 9일 투고되어
2018년 6월 3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6월 7일 게재 확정됨.